

ISSUE & FOCUS

Newsletter 2016-10(1)

동맹의 딜레마에 빠진 한국, 북핵을 막을 수 있나

이정훈 동아일보 편집위원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시대를 위한 국방개혁

바야흐로 핵시대이다. 종북노선을 따르거나 '설마 설마'를 반복하는 국민이 아니라면 이제는 핵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토록 싫어하는 김정은은 핵을 가졌고 우리는 핵이 없는 그런 시대이다. 미국이 유사시 제공한다고 한 '확장 억제'만 믿고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이 이뤄졌다고 믿어야 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이다.

어느 날 김정은이 핵도발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일제히 미국을 바라보아야 한다. 선제타격을 가하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와 킬 체인(Kill Chain: 30분 안에 목표물을 타격하는 한미연합 선제타격 체제), 대량응징작전(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의 가동을 준비하든, 선제 핵공격을 당한 후 '너도 죽이는' 보복을 하겠다며 제2격을 가하든 모두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시기 미국에 종속되는 대한민국. 우리는 이

러한 나라를 건설하려고 그토록 노력해왔던가. 한반도 비핵화를 금과옥조처럼 지켜왔던 것인가.

대한민국은 ‘동맹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동맹은 보다 적은 금액으로 국방을 하는 방안이다. 가장 좋은 것은 최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동맹을 맺은 나라가 하는 전쟁에 참여해줘야 하는 의무가 그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야”라고 거부한다면, 최강대국도 “우리도 너희를 위해 젊은이를 희생시킬 수 없어”하며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동맹이 깨져버리면, 그동안 최강대국을 믿고 국방을 가벼이 해온 대가를 치르게 된다. 우리를 눈엣가시로 여겨온 적(敵)은 ‘버려진 우리를’ 공격해올 수가 있다. 그때서야 우리는 동맹의 의무를 거부하자고 한 세력을 처단할 것인가. 처단을 위한 책임추궁은 더 큰 위험인 ‘적전분열(敵前分裂)’을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가 싫다면 우리는 동맹이 하는 전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독립국가라면 전쟁 참여를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동맹이란 그러한 주권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최강대국과 맺는 동맹은 최고의 국방 방안이지만, 주권 행사를 포기하고 최강대국이 하는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부담이 바로 ‘동맹의 딜레마’이다. 그러나 이러한 동맹을 유지하면, 우리는 경제에서도 최강대국인 동맹국과 많은 교류를 하게 됨으로써 번성할 수 있다. 동맹은 딜레마만큼이나 발전도 보장해주는 것이다.

동맹의 딜레마에 빠진 한국

오래 전부터 북한은 우리의 동맹의 딜레마를 흔들어왔다. ‘남조선은 주권이 없는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고 조롱하며 대한민국 국군을 괴뢰군으로 불려왔다. ‘한반도에서 미 제국주의를 밀어내는 것’이 바로 남조선 해방이라며 민족을 강조해왔다. ‘자주’와 ‘민족’은 잘 살게 된 우리를 찢어대는 날카로운 단검이었다. 때문에 똑똑하다는 소리를 들은 일부 젊은이들은 보란 듯이 북한을 찬양하기도 했다.

동맹과 자주와 민주를 거론한 것은 국군의 사기(士氣)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 경제와 국제정치와 군사의 차이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경제는 거래이기에 ‘돈’을 기반으로 한다. 돈은 숫자로 표기되니 경제는 계량화될 수 있다. A국가의 국부는 1조 원이고, B나라의 경제규모는 2조원이라는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가난한 B국이 잘 사는 A국을 이기는 경우가 있다.

경제학으로는 이러한 결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제정치학이라면 가능하다. 국제정치학은 전쟁의 승패를 국부로만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습적인 선제공격은

성공시키면 잘 사는 나라를 쓰러뜨릴 수 있다. 그래서 기습을 결심하는 지도자, 작전을 잘 짜는 지휘관, 그리고 용감한 병사에 주목한다. 인간의 의지와 지능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 가치는 수자(數字)화할 수 없다.

영화 ‘300’은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가 100만 명의 페르시아 군사와 싸움을 소재로 한다. 1당 백이 실력을 가졌더라도 300대 1만은 성립할 수가 없는 싸움이다. 그러나 300명이 좁은 ‘목’을 장악했다면 해볼 만하다. 자연조건을 이용한 필살의 의지를 보탠다면 체력이 유지되는 한 100만 명을 막아낼 수가 있다. 이순신도 울돌목이라는 목에서 12척의 병선으로 330척이 넘는 왜 함대를 막아낸 바 있다. 비결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것이었다.

국제정치학으로는 울돌목의 승리(명량해전)와 300의 분전을 설명할 수가 없다. 군사학의 요체인 작전으로도 해명하지 못한다.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이용한 작전과 모든 병사의 헌신을 받아내는 리더십, 그리고 개개 병사의 격렬한 용기가 아우러져야 일어난다. 이를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한다. 돌아보면 도처에 기적이 있다. 그러나 ‘고아의 기적은 없다’가 현실화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로 구성된 집단은 승리하지 못한다가 보편적인 진실이다.

지휘관의 리더십과 병사의 사기가 만든 기적

68주년 국군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대목에서 독자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북한의 핵도발을 국군이 막아줄 수 있다고 믿느냐”고. 국군 지도부에도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북한의 핵도발을 진짜로 막을 수 있겠느냐”고. 군인들은 할 수 있다고 대답하겠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독자는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을 군인의 본분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가 원하는 것을 군사적으로 해내는데 있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꿈이 통일이라면 군사적 차원에서 통일을 해내는 것이 군인이어야 한다. 군인은 죽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가의 목적을 달성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군인도 사람이기에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군신(軍神)으로 불리는 이순신도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하고 고민을 했을까. 이 말 속에는 작전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숨어 있다. 그러나 병사의 의지는 병사가 일으켜야 하는 것이라 이순신도 그 방법을 찾느라 고민하고 고민한 것이다. 경제적 비교에서는 깨져야 하는 나라, 국제정치학적 연구로는 항복해야 하는 나라가 승리를 하는 것은 지도자, 지휘관의 능력과 병사들의 사기 때문이다.

핵을 가진 북한을 이기려면

핵을 가진 나라의 군대가 사기가 높을까, 핵이 없는 군대의 사기가 높을까. 좀 더 명확한 비교를 위해 핵을 가진 나라의 군대와 핵이 없는 나라의 군대가 싸울 때 어느 쪽 군대가 사기가 높은지 물어보자. 그 대답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립에서 찾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의 반군을 지원해온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가 영유해온 크림반도를 차지하는데 성공했다. 그때 우크라이나에서는 ‘왜 비핵화를 선택했느냐’는 피울음이 터져 나왔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자 미국은 세계적인 비핵화를 추진했다.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이 갖게 된 핵무기는 소련으로 보내 파기하게 하고 대신 경제지원을 해준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이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혹시 모를 불안에 대비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우크라이나의 독립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빼앗길 때 미국과 영국은 군사행동을 하지 않았다. 러시아를 상대로 경제 제재만 가했는데, 러시아는 그 제제를 지금까지도 잘 버텨내고 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에서 편안하게 미-러, 영-러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과 협력하라

우리는 핵을 가진 북한을 상대로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성공시키고, 고대하던 평화를 위한 통일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일까. 수가 보이지 않을 때는 현실을 직시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 연마해야 한다. 그리고 불굴의 의지를 내야 한다. 북한 정권교체는 교묘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 심리전을 주축으로 한 북한 민주화공작과 북한을 고립시키는 외교전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동맹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미국과 강한 동맹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위기에 처한 북한이 할 수 있는 핵도발에 대비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지지원협정을 맺어 일본을 후방기지로 자리매김 해놓는 것도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된다. 연해주 개발에 참여해 러시아를 친한화 해놓아야 한다. 그리고 중국을 상대로 한판 외교전을 펼쳐야 한다. 이는 위기에 처한 북한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명분으로 중국을 옹아매는 것이다.

그리고 군 지휘관의 능력을 정예화하고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이 파병이다. 운동선수들의 결전장이 올림픽이라면 군인들의 무대는 전장(戰場)이다. 목숨을 걸고 전쟁과 전투를 해봐야 진짜 작전과 진짜 사기를 알 수 있다. 미군이 강한 것은 전쟁과 전투를 가장 많이 해봤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라크전, 아프간전 등 21세기 들어 전쟁을 한 거의 유일한 나라다.

금세기 들어 유일하게 다섯 번이나 핵실험을 한 북한을 제압해 통일을 이루려면 우

리 군의 능력과 사기를 올리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 방법은 혹독한 현실 속에 집어 넣는 것이다. 우리 군이 해야 할 개혁은 좋은 무기를 사오는 것이 아니라 실전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한 경험 속에서 진짜 사기가 나온다. 12척으로 330척을 이긴 진짜 용기가.

핵을 가진 인민군을 이기는 비결은 실전 참여에 있다. 우리 군이 해야 할 국방개혁은 파병에 맞춰져야 한다. 실전 감각을 익히면 비핵국가가 핵국가를 통일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